
 문화체육관광부		<h1>보 도 자 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7. 30.(금) 오후 3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7. 30.(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박주옥(044-203-2621)	담당자	주무관 김은실(044-203-262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도서관 방역 현장 점검 - 7. 30. 문체부 제1차관, 서울 성동구 지역 도서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7월 30일(금)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소속 도서관*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성동구립 금호도서관 및 숲속도서관(2개관)

오영우 차관은 먼저 ▲ 출입자 발열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출입자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 시설 환기 등 도서관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그동안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에 힘써 준 도서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서관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문화시설이 휴관하는 중에도 ▲ 승차대출(드라이브 스루), ▲ 도서 택배 또는 우편 배달 서비스, ▲ 공공장소(지하철 등)에의 무인도서대출시스템 설치·운영 등,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온라인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국민들에게 지식 정보와 문화향유서비스를 끊임 없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 대출 전후 소독, 좌석 간 가림막 설치, 시설 정기적 소독 및 환기 등으로 안전한 도서관 방역 환경을 만들어 코로나 방역의 우수사례로 꼽혀왔다.

오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서관 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이 낮은 것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 덕분이다.”라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서관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주무관 김은실(☎ 044-203-26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